

2023년 7월 20일(목) 정기

이 보도자료는 2023년 7월 20일 오전 07: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금융육성팀

유 형 : 기본계획 발표

사진유무 : 사진있음 사진없음
*사진자료 추후 별송

과장	김동훈	051-888-4860
팀장	김창현	051-888-4873
담당자	전승목	051-888-4872

- '부산금융중심지 발전협의회 기관장 회의' 개최 -

부산시, 국제적인 금융도시 기반 구축 위한 「부산 금융산업 육성계획」 발표

- ◆ 7.20. 11:00, 아바니센트럴부산에서 개최... 부산시, 부산국제금융센터 입주기관, 금융 유관기관 등 기관대표자 참석하여 부산금융산업 발전 논의
- ◆ 부산시, 「부산 금융산업 육성계획」 발표... ▲글로벌 금융중심지 기반 구축, ▲정책금융기관 집적 효과 극대화, ▲아시아 디지털금융중심지 도약, ▲해양파생금융 혁신 등 4대 추진과제 내용 담아
- ◆ 특히, 금융특구 제도 도입 추진 및 정책금융기관 추가 유치 등 부산 금융혁신 의지 밝혀

- 부산시와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부산 금융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0일) 오전 11시, 아바니센트럴부산(부산 문현동 소재)에서 부산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입주기관, 금융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부산금융중심지 발전협의회 기관장 회의' 에서 「부산 금융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하고 협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입주기관 대표,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금융 유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는 「부산 금융산업 육성계획」을 설명하고, 참여기관들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부산금융중심지 발전협의회 기관장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3.7.20.(목) 11:00~13:00 / 아바니센트럴부산(남구 문현동 소재)
- 참 석 자 : 17명(박형준 부산시장, BIFC 입주기관장, 금융 유관기관장 등)
- 주요내용 : 부산 금융산업 육성계획 설명 및 기관 공동관심사 논의 등

※ 부산금융중심지발전협의회 설립 개요

- ❖ 취 지 :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교류와 협력의 장 마련
- ❖ 출 범 : 2015. 1. 28.(월1회 개최) ※ 2023년도부터 분기별 1회 개최

- 이번 계획은 곧 금융중심지 15주년을 맞게 되는 부산시가 그동안 부산국제 금융센터 단계별 조성, 금융전문인력 양성, 금융기술(핀테크)·블록체인·디지털 기반의 신성장동력 발굴 등 금융도시로의 기반을 갖추어 가고 있으나, 충분한 금융기능이 확보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부산의 금융중심지 기회요인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3대 중점전략과 4대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 3대 중점전략은 ▲집적된 정책금융기관과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여건 극대화 ▲특화금융(해양·파생)과 전략적 관계망(네트워크)을 활용한 목표(타깃) 금융사 유치 ▲영업·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금융특구(두바이·싱가포르) 제도 도입 등 추진이다.
- 4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추진과제① 글로벌 금융중심지 기반 구축) 국제적 금융기관 유치 등을 위해 국내외 전략적 관계망(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투자설명회(IR) 개최 등을 통해 부산금융 인지도를 제고하고, 선순환 금융투자생태계 강화, 금융권 데이터센터 건립, 금융특구 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해 관련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 (추진과제② 정책금융기관 집적 효과 극대화) 부산 소재 정책금융기관과 유관기관의 정책금융 기능 강화 및 협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함께 지역 특성 및 실물경제 활성화를 반영한 정책금융기관 추가 이전 등을 추진한다.
 - (추진과제③ 아시아 디지털금융중심지 도약) 디지털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금융밸리 조성(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과 디지털금융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금융기술(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디지털자산을 기반으로 신성장동력을 발굴한다.
 - (추진과제④ 해양·파생 금융 혁신) 한국해양진흥공사·해양금융종합센터 중심으로 해양금융 정책지원 활성화 등을 통해 해양특화 금융중심지 기반을 강화한다. 한국해양대·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교육훈련원(FATF TRAIN)을 통해 특화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미래 금융인 녹색금융 성장 기반 거점을 마련하고 녹색금융 중심 파생 금융 분야를 활성화한다.
- 한편, 부산시는 2022년 3월에 착공한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고, 국정과제인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 및 법률 개정을 위한 민·관·정 협력전담팀(TF)이 출범하는 등 부산 금융산업 핵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박형준 시장은 “이번 계획은 부산이 경쟁력 있는 국제금융도시가 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 라며, “국제 중심도시는 사람·물자·돈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기능을 충분히 갖추어 부산이 금융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이어, “나아가 젊은 인재들이 모여서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의지를 밝혔다.

참고 1

부산금융중심지 발전협의회 기관장 회의 개요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3. 7. 20.(목) 11:00~13:00 / 아바니호텔 브릿지3(BIFC 소재)
- 참석대상 : 17명(부산시 1, BIFC 입주기관 10, 유관기관 5, 연구기관 1)
- 주요내용 : 기관별 주요 현안 회의 및 기관 공동관심사 논의 등

■ 《 부산금융중심지발전협의회 》

- ❖ 취 지 :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교류와 협력의 장 마련
- ❖ 출 범 : 2015. 1. 28.(월1회 개최) ※ 2023년도부터 분기별 1회 개최

□ 진행순서(안)

구분	시 간 별	장 소	내 용	비 고
1부	11:00~11:05	5'	참석자 소개	(사회) 금융블록체인담당관
	11:05~11:15	10'	개회사	시장
	11:15~11:25	10'	부산 금융산업 육성계획 설명	(설명) 금융창업정책관
	11:25~12:00	35'	인사 및 자유토의	(주재) 시장 ※ 참석자 전원 발언
2부	12:00~12:55	55	오찬간담회	(주재) 시장
	12:55~13:00	5'	마무리말씀	시장

□ 참석자

구 분	기관·단체명	직위	성명	비고
부산시(1)	부산광역시	시장	박 형 준	
BIFC 입주기관 (10)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 종 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유 병 태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	김 기 경	대참
	한국남부발전	사장	이 승 우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본부장	김 기 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신 흥 식	대참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이 규 진	대참
	해양금융종합센터	센터장	박 종 만	
	BNK 금융지주	회장	빈 대 인	
유관 기관 단체 (5)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부산울산지원장	양 진 태	
	(사)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센터장	손 국 호	대참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	김 종 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장 인 화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김 양 수	
연구기관(1)	부산연구원	원장	신 현 석	

1

부산금융중심지 정책 비전 · 체계도

비 전

글로벌 금융허브도시 부산

목 표

【부산 금융산업 육성계획('23.~'25.) 기간 내]
국제적인 금융도시 도약 기반 구축

중점전략

- 집적된 정책금융기관 · 디지털역량 바탕으로 금융산업 여건 극대화
- 특화 금융해양·파생 · 전략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타겟 금융사 유치
- 영업 ·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금융특구^{두바이·싱가포르} 제도 도입 등 추진

추진과제

1 글로벌 금융중심지 기반 구축

- 전략적 금융 네트워크 구축
- BIFC 인근 금융권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
- 선순환 금융투자생태계 강화
- 경영 · 생활환경 개선, 특구모델 추진
- 부산금융중심지 인지도 제고

2 정책금융기관 집적 효과 극대화

- 정책금융기관 기능 강화 · 협업 지원
- 정책금융기관 추가 유치 추진
- 기술혁신 지원 기반 기술금융도시 조성

3 아시아 디지털금융중심지 도약

- 디지털 금융도시 전초기지 「D-Valley」 완성
- 핀테크기업 육성 · 유치
- 블록체인 · 디지털자산 기반 지역 신성장동력 발굴
- 디지털금융 핵심인재 양성

4 해양 · 파생금융 혁신

- 해양특화 금융중심지 기반 강화
- 특화 금융전문인력 양성
- 녹색금융 성장기반 구축
- 녹색금융 중심 파생금융 활성화

□ 전략적 금융 네트워크 구축(글로벌 금융기관 등 유치)

- (국내 전략적 금융 네트워크 구축) 지·산·학·연이 참여하는 부산 금융중심지 경제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부산국제금융센터 입주기관 중심 협의체인 부산금융중심지 발전협의회 내실화

* 부산시·BIFC 입주기관·대학교 등 23개 기관 참여 지역산업 육성 및 금융산업 발전 도모 등

- (아시아 금융허브 네트워크 구축) 홍콩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협력 관계 구축, 핀테크 분야 강점을 가진 싱가포르와의 전략적 관계 구축

- (글로벌 금융기관 등 유치) 대륙별·업종별 타게팅을 설정하여 효과적으로 글로벌 금융기관 등을 유치

- 아시아지역 해양·파생·핀테크 관련 외국 금융기관 등 유치
- 국제금융기구 교육기구·연구기관 등 적극 유치

- (자본시장인프라 확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 : ATS)가 본격 운영되는 경우 한국거래소(본사 부산 소재) 등과 실질적 경쟁이 이뤄지도록 부산 유치 추진

□ BIFC 인근 금융권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

- 국내 금융권 데이터센터 분야에 인지도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한국예탁결제원 및 코스콤을 통해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

- (한국예탁결제원 데이터센터 건립) 동구 좌성초 폐교부지(4,000평 규모) 활용, 수도권 데이터센터 유치

* 설계 및 인허가('24년) → 착공('25년) → 완공('27년)

- (코스콤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 부산국제금융센터 인근 적정 부지 검토 중 (2,000평 규모)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등 신기술 및 신사업 발굴 계획

* 부지매입 → 설계·인허가 → 착공·완공

□ **선순환 금융투자생태계 강화**

- (창업생태계) 지역중심 분권형 창업정책 수립, 전방위 스타트업 지원체계 구축, 금융중심 토탈창업지원 거점 조성, 투자의 공공성 강화·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지방시대' 지역주도 창업정책을 통해 지역 혁신 모멘텀을 선도하고 원스톱 창업지원 및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전담하는 출연기관(가칭 부산창업청) 신설('24.하)
- (투자생태계) 시, 지역 금융기관 및 투자기관 주도 지역특화 펀드 운영 및 혁신창업 펀드 조성을 통한 지역중심 투자생태계 활성화
 - 부산지역혁신(뉴딜) 벤처펀드* : 1,300억원 이상 조성('23년까지 조성, '33년까지 운영)
 - * 부산시 7대 전략산업 등 주목적 투자,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 지역 의무 투자
 - 주목적이 지역투자가 될 수 있는 부산형 스케일업 모펀드* 조성 추진
 - * 금융 공기관, 지역 금융기관 등과 지역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모펀드(자펀드까지 4,000억 규모) 조성

□ **지속적인 경영·생활환경 개선 및 금융특구제도 도입 추진**

- (금융특구 제도 도입 추진) 글로벌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고용·경영여건 등에 관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및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된 금융특구* 지정을 위해 금융당국·국회·유관부처 등과 지속 협의
 - * 해외사례수준(홍콩싱가포르 등 도시국가, 두바이더블린 등 금융특구 지정)으로 획기적 제도 마련
 - 특구 지정 및 각종 규제의 예외 적용을 위해 현행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또는 금융특구법(가칭) 제정 지원
- (비즈니스 및 정주환경 개선)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영업 및 생활환경 개선 적극 추진
 - 외국 금융기관 등 입주기관 지원 플랫폼 운용, 외국인 상담 콜센터 운영 등
- (네트워크 공간 지속 조성)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오피스('25년 말 완공 예정)
 - * (예시) 커뮤니티 공간(22층) 및 다목적 회의장 조성(45층)

□ 부산금융중심지 인지도 제고

- (국제금융센터 협의체 교류 강화) 부산국제금융진흥원과 협력하여 주요 글로벌 금융센터*와의 네트워크 강화
 - * WAIFC(국제금융센터세계연합) '18.10월 가입, FC4S(국제금융네트워크) '21.6월 가입
- (아시아 주요도시 IR 개최) 홍콩, 싱가포르 등 대상 해외 IR 개최
 - 전략적 접근*으로 디지털 금융기업, 글로벌 금융기관 거점 지역본부 등을 대상으로 타케팅
 - * 홍콩 금융기관 부산 유치(BMI), 싱가포르 핀테크 분야 교류(국제 페스티벌 참가 등)
- (국제적 수준 행사 개최) 글로벌 금융 종사자가 참여하는 포럼, 세미나 등 각종 국제적 수준 행사 개최로 부산금융중심지 인지도 제고
 - 국제(금융)기구, 금융공공기관·민간금융기관(학회·회사) 등 국제행사 부산 유치
- (기업유치 상담 창구 운영) 국내 진출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웹페이지 구축('23년)

2 정책금융기관 집적효과 극대화

□ 정책금융기관 기능 강화 · 협업 지원

- (기관간 소통·협력의 활성화*) 기관 경쟁력 제고 유도
 - * 부산금융중심지 경제협력 네트워크, 부산금융중심지 발전협의회 등 활성화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유도)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
 - 선박건조, 조선기자재, 항만인프라 조성 등 해양금융 지원(해양진흥공사, 해양금융종합센터)
 - 정책금융기관별 기업 지원 대책이 지역내 기업에게 성장주기별로 적절히 적용되어 지역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
 - * 회사채 및 대출채권 유동화를 통한 벤처기업 지원(기보),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자산매입후 임대'를 통해 정상화 지원(캠코), 중견기업 성장지원을 통한 자금조달(거래소) 등 기업 성장 프로그램 운용
-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유망 스타트업의 기업설명회, 산업계 전문가 및 투자자의 특강 등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 동남권 지역 벤처플랫폼 「동남권 스타트업 모닝 피치」 구축(한국산업은행)

□ 정책금융기관 추가 유치 추진

- (한국산업은행 이전) 국정과제인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으로 정책금융중심지 기반을 구축(23년~)하여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 및 남부권 산업경쟁력 제고
 -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의 주력산업 및 4차 산업 기반 산업과 한국산업은행과의 협업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창출 기대
-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1차 이전 금융공공기관 및 한국산업은행과 연계된 ①금융·투자 지원기관, ②창업 지원 기관, ③해양·선박산업 지원 기관 등 지역 특성 및 실물경제 활성화를 반영한 공공기관 우선 유치

□ 기술혁신 지원 기반 기술금융도시 조성 * 기술보증기금

- (미래신산업 지원) 디지털전환, 차세대 에너지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의 성장 지원을 위한 보증지원 확대
 - 반도체·AI·바이오 등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영위 기업에 대해 기술보증, 기술이전, 컨설팅 등 금융·비금융 전방위 지원
- (스케일업 지원)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기업이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지원
 -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예비유니콘 기업을 선정하여 최대 200억의 기술보증기금 특별보증 및 기술특례상장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
- (보증연계투자* 활성화) 초기 창업기업·지방기업 중심의 보증연계투자 직접 지원 및 투자기업 심사정보 VC 제공·IR 개최를 통한 민간 후속투자유치 지원
 - * 높은 창업초기기술혁신 중소기업에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투자 지원 제도
- (투자연계보증* 확대)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성장동력을 견인하기 위해 투자연계보증 5000억원으로 확대(23년)
 - AC,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다음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기까지 추가적인 스케일업(scale-up) 성장 지원
 - * 창투자 등 벤처캐피탈(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 기보가 우대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디지털 금융도시 전초기지 「D(Digital)-Valley」 완성

-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오피스* 공간 활용, AI·블록체인 등 4차산업 기술 기반 디지털 금융기업과 업무 지원(투자·보증·인프라 등) 기능을 집적한 남부권 최대 디지털 금융밸리 특화 개발

* 부지 10,293㎡, 연면적 146,568㎡, 지상 45층, 착공(22.3월) 준공예정(25.)

- (D-Valley 완성) 기술금융기업 200개사 및 업무지원 기능(교육·투자·교육 등)을 집적화하여 남부권 최대규모의 디지털 금융밸리 구축
 - 업무지원 기능 확보 : 디지털 금융전문대학원(교육), 벤처캐피탈·기업보증기관(투자·보증), 직장어린이집(교육) 등
- (디지털 금융허브)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디지털 금융허브로 육성

□ 지역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기업 육성·유치

- (핀테크 허브 운영 강화) 입주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핀테크 네트워크 확대 및 협업 등을 통한 기업 성장 지원
- (핀테크팍* BIFC) 우수인력과 자금력이 풍부한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핀테크랩 5개사 및 매년 50개 이상 핀테크 기업 유치

* 핀테크 기업·인재 육성하는 농장 및 핀테크를 '판다'는 중의적 표현

- (부산 핀테크 스타기업 「B-Fintech 20」 육성) 부산 핀테크 대표기업 20곳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
- (인슈어테크* 시장 육성) 선박·물류·항만 등과 연계된 보험산업에 정보 기술(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부가가치 창출 주력
 - * 보험(l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이며 기존의 보험산업을 혁신하는 서비스
 - 선박보험·적하보험 등 전통금융에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보험산업 혁신 및 관련 외국 금융기관 등 유치

□ **블록체인 · 디지털자산 기반 지역 신성장동력 발굴**

- (지역 특화 클러스터 조성)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23년),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 및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산업육성 인프라 조성
 - * 블록체인 기반 신생기업 입주공간 및 기술지원(BIFC 21~22층) : 19개사, 81명
 - ** 블록체인 특화 전문기업 육성(BIFC 8층) : 16개사
-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금융 · 의료 · 부동산 등), 배터리 안전수송 등 시범사업 및 신규사업 지속 발굴
- (디지털자산 거래 생태계 조성 지원) 건전한 디지털자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거래 생태계 조성 지원('23년~'28년)
 - 협력기구 설립 · 디지털자산 발굴 · 발행 지원, 디지털자산 원스톱 발행 지원

□ **디지털금융 핵심인재 양성**

- 디지털 금융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시민 대상 아카데미 운영 및 디지털 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디지털 금융전문대학원 조성
 - (부산 디지털 금융혁신 아카데미) 일반인 대상 금융전반에 대한 시민 참여, 이해력 증진 등 디지털 금융 이해도 제고('23.~'24.)
 - (디지털 금융전문대학원 조성) 부산 지역 디지털 금융전문가 양성을 위한 민간주도형 전문교육기관 조성('23.~'26)

4

해양 · 파생 금융 혁신

□ **해양특화 금융중심지 기반 강화** * 한국해양진흥공사 · 해양금융종합센터

- (정책 금융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금융종합센터 중심으로 해양금융 지원 기능 강화와 부산해양금융협의체 내실화를 통한 해양금융도시 부산 구현

- **(한국해양진흥공사 기능 확대)** 해운항만산업 금융 공급 확대, 시황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기대응 강화, 산업환경 전환기 변화 대응 지원
 - * 선박금융(7,240억원).컨테이너박스 금융(1,090억원) 투자 지원('23년)
 - 선사 발행 녹색채권 등에 투자하는 위기 대응 펀드 조성(5년간 5천억원 규모)
 - IMO(국제해사기구) 규제 등 대응 친환경 선박 50척 건조지원(~'26년)
- **(해양금융종합센터 기능 강화)** 신조지원 프로그램 추진, 조선·기자재·해운사 자금지원, 정책금융기관간 협업 강화
 - * 국적선사의 친환경 선박 도입에 대한 신조지원 프로그램 운영('21년~)
 - 정책금융기관별 조선.선박 등 자금지원, 친환경 펀드 조성.운용
 - 센터 내 기관별 공동 또는 유관기관(해진공.캠코) 협업 금융지원 확대
- **(해양금융 혁신서비스)** 선박금융 분야에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STO)**을 활용한 조각투자 방식 도입 및 **해운지수(해상운임·컨테이너 운임 등)** 기초의 파생상품 거래시장 확대 모색
- **(부산해양금융협의체 내실화)** 해양금융 발전방안 모색 등 공동협력 사업 발굴·추진, 해양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학회(협회)·기업, 유관기관 참여 확대 해양금융 경쟁력 강화 도모**

□ 특화 금융전문인력 양성

- 해양특화 금융중심지 기반 조성을 위한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교육훈련원(FATF TRAIN)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분야 전문가 양성 및 FATF 산하 국제금융행사 부산 유치
- **(해양특화 금융전문인력 양성)** 해양특화 금융중심지 기반 조성을 위한 해양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지역 우수인력 배출 및 글로벌 해양금융인재 양성
 - * (기간) '23.~'25.(3년간), 총 45명 양성(해양금융 석사과정, 3학기+계절학기), 한국해양대
 - (대상) 해운/금융권 재직자, 관련학과 졸업생, (예비)취.창업자(정원 연 15명)
-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양성)** 자금세탁방지 교육훈련원(FATF TRAIN)을 통한 자금세탁분야 전문가 양성* 및 국제 행사 유치
 - * FATF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화 모색
 - '아시아 지역기구(APG) 총회, 민간합동 전문가 회의 등 국제금융행사 부산 유치 추진

□ 녹색금융 성장 기반 거점 마련 * 기술보증기금 · 한국거래소

- (녹색금융 성장기반 구축) 부산에 소재한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에 서는 탄소가치평가보증, 사회책임투자 채권 발행
 - (기술보증기금 탄소가치평가보증)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산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업체를 선별하고 지원(보증규모 : '23년 기준 5천억원)
 -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한국거래소는 사회책임투자채권을 등록관리하고, SRI채권* 전용 세그먼트를 개설하여 운영('20년~)
- *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채권은 환경 또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창출하는 사업에 조달자금을 사용하는 채권

□ 녹색금융 중심 파생금융 활성화 * 한국거래소

- (녹색금융 중심 파생금융 활성화) 한국거래소(파생시장본부)는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개선 방향 마련, 부산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메카' 로 육성('23년~)
 - (제3차 배출권 거래제도 기본계획) 제3자(증권사, 개인 등) 참여허용, 파생상품 도입, 유상할당 경매* 확대
- * 기업들이 온실가스배출권을 정부로부터 유료로 사들이는 것으로, 제2차 계획기간(2018 ~ 2020년)부터 유상할당업체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3%, 제3차 계획기간(2021 ~ 2025년) 이후에는 10% 이상이 경매 방식으로 공급
- (단계적 제도 시행) 증권사의 자기매매 참여,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23년초), 위탁매매 단계적 도입(할당대상업체 위주로 우선 시행)
- *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증권사